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구축*

- 부산의 강남 따라하기를 사례로 -

황진태**

Building a developmental urban matrix : a Busan city case study*

Jin-Tae Hwang**

요약 : 본 연구는 서울 강남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강남 따라하기를 하는 지방도시에 주목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신문기사를 비롯한 담론분석, 현지답사와 부산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거주자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강남 따라하기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소위 “강남문제”는 강남이란 물리적, 상징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강남뿐만 아니라 “X의 강남”이 형성되는 공간인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각 지방도들이 지향하는 도시모델이 강남 따라하기가 아닌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탈발전주의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식론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 발전주의 도시성, 물질성, 사회적 공간, 센텀시티, 마린시티, 부산

Abstract :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not only Gangnam but also cities outside Seoul that attempt to follow the Gangnam model are deeply involved in Korean developmental urbanism. It examines discursive materials such as newspaper articles, newspaper advertisements and online debates as significant sources of information showing how certain districts are materially and discursively constructed by diverse actors in the national capital and in other cities. The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lasting up to two hours reveals local residents' imagined geographies.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so-called “Gangnam problem” should be understood as existing beyond the physical, symbolic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Gangnam, in cities that follow the Gangnam model. This study helps to provide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more equitable, sustainable and de-developmental urbanism.

Key Words : developmental urban matrix, developmental urbanism, materiality, social space, Centum City, Marine City, Busan.

1. 서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X의 강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은 쉽게 발견된다. 여기서 X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대부분의 지방 대도시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방정식을 만든 대중의 인식은 첫째, 전국에서 서울 강남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방 대도시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공간적 위계를 드러낸다. 즉, ‘X의 강남은 어디인가?’에서 지방도들이 X를 차지할 수는 있더라도, ‘강남’이란 상수를 대체할 수는 없다. 둘

째, 자신들의 도시가 상수인 강남을 대체할 순 없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지방의 강남들’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남 따라하기’다.

본 연구가 강남 따라하기에 주목하는 것은 강남 혹은 강남의 변종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 대한 국지적 이해로만 국한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성(developmental urbanism)이라는 보다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성이란 양차대전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압축

* 논문의 초고에 날카로운 논평을 주신 심사자 세 분과 이영민 선생님, 립수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한윤애, 임도연 연구조교와 류연미 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강남을 바라보는 다층적 시선을 알려준 ‘내부자’ 안정하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강남개발을 비롯하여 서울도시계획의 주역이자, 국내도시연구의 기틀을 닦으셨던 지난 5월 9일 별세한 서울시립대 손정목 선생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3A2044551).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dchjt@naver.com)

적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노동자가 배제된 채 정부와 재벌 주도의 대규모 도시인프라가 조성되고, 담론적으로는 발전 이데올로기(예컨대,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선진화’)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가 환경, 평등, 정의, 분배 등의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시되는 심상공간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구성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과학 전반에서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대표문헌으로 Johnson, 1982; Amsden, 1989; Woo-Cumings, 1999).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은 경제개발에 있어서 사적이해관계로부터 떨어져있는 국가관료와 이들이 주도하는 장기적인 국토 및 경제개발정책의 시행이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 혹은 압축적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시장합리성(market rationality)에 기반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최소개입을 주문하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이 정책가와 학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다른 대안’으로서 발전국가론이 가지는 실천적 의의는 결코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국가관료(건설부, 경제기획원), 공기업(토지주택공사) 혹은 대기업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의 산물로 환원하다보니 국가 스케일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 글로벌 등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행위자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즉, 발전주의 국가론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덫에 빠져있는 것이다(Hwang, 2015). 발전주의 국가의 도시공간이 형성된 초창기에는 국가관료, 국가자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을지라도, 그 도시공간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동력은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바로 그 도시에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febvre, 2000, 2003).

본 연구에서 관찰의 스케일을 국가 스케일로부터 도시 스케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둔감한 국가중심적 시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도시에서의 사회와 공간간의 내밀한 변증

법적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창발적 속성들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developmental urban matrix)’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매트릭스라는 은유는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년 작)로부터 차용하였다(용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을 참조바람). 영화 <매트릭스>의 세상에서 인간의 의식은 인공지능 컴퓨터(AI)가 조성한 가상현실에 갇혀 살아가고, 인간의 신체는 AI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AI를 파괴하는 것만으로 기계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AI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현실을 지지하는 인간의 의식 또한 바뀌어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에 강남이라는 AI뿐만 아니라 이러한 AI를 유지하도록 강남 밖에서 강남 따라하기를 하는 지방도시들 또한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서, 오늘날 한국 도시중산층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간주되는 서울 강남이 어떻게 지방도시에서 물질적, 담론적으로 확산, 재현, 변형되는 지를 주목한다. 강남은 급격한 국가경제발전과 동반되어 출현한 중산층의 공간으로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거나 “강남오렌지족”, “강남줄부”, “강남치맛바람”, “강남공화국”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는 부정과 욕망의 변증법이 존재해왔다(이영민, 2006; 이동현·이향아, 2011).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남을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들에서는 강남의 로컬리티(locality)를 강남이라는 국지화된 물질적, 행정적, 상징적 경계 안에서만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인문지리학에서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의 영향을 받은 장소성 논의(Cresswell, 2013; 황진태, 2011a)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에서 “X의 강남”의 구성이 단순히 서울 강남의 복제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처럼 서울 강남의 공간적 위상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신문기사를 비롯한 담론분석과 부산 답사(2015년 9월과 12월)와 부산 센텀시

표 1. 심층인터뷰 응답자 명단

	나이	현재 사는 곳	주요 특징	인터뷰 일자
A	40대	센텀시티	고등학교까지 강남 거주했음	15.09.24
B	50대	마린시티	독일유학 경험	15.12.11
C	40대	마린시티	주상복합아파트 고급 인테리어 업자	15.12.11
D	60대	마린시티	센텀시티 거주 경험	15.12.10
E	40대	해운대 신시가지	대구 출신. 2000년 부산으로 이사	15.12.11
F	40대	센텀시티	서울, 부천에서 거주 경험 있음	15.09.23
G	30대	마린시티	초등학생 자녀를 11개월간 해외영어프로그램에 보냄	15.12.10
H	20대	서울 서초구 구반포	십대부터 구반포에서 거주	16.04.24
I	20대	서울 용산구	고등학교까지 센텀시티에서 거주	16.04.25

티와 마린시티 거주자를 중심으로 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인터뷰 응답자의 간략한 특징은 <표 1>을 확인).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거주경험이 있던 지인들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강남 따라하기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소위 “강남문제”가 강남이란 물리적, 상징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강남뿐만 아니라 “X의 강남”이 형성되는 공간인 지방도시에 대한 숙고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각 지방도시들이 지향하는 도시모델이 강남 따라하기가 아닌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탈발전주의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식론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개념화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국토는 일부 친일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균등한’ 가난이라는 물적 조건을 제공하였다(Kang, 2011; 김태우, 2013, 9장). 국가재건을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 ‘잘 살아보세’ 등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과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을 발전에 필요한 객체로 동원하였고, 시민사회, 노동권 및 인권의 억압을 정당화하였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의회연설에서 제시한 네 가지 자유인 언론과 자유의사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의 자유에 대해서 박정희는 선별적으로 결핍의 자유와 공포(북한)로부터의 자유만을 옹호하고, 나머지 자유들은 억압한 것이다(Kim, 2011, 102).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화된 국내총생산(GDP)으로 상징되는 물질주의와 경제성장을 장려하고, 분배, 환경, 공공성, 공동체, 균형발전, 민주주의 등의 여러 가치들은 배제하는 가치체계는 국가관료뿐만 아니라 기업, 가족, 개인 수준까지 전사회적으로 구조화한 ‘발전주의 망탈리테(developmentalist mentalité)’(Kang, 2011)로 거듭난다. 발전주의 망탈리테는 이를 담아내는 특정 공간을 통하여 지속 혹은 심화될 수 있다. 아래서 살펴볼 강남은 발전주의 망탈리테가 발현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여기서 강남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인식을 (재)환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강남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주의적 질문을 전략적으로 회피하고, 강남 로컬리티의 역사적 유동성을 보다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강남이 한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차지하는 위상은 고정된, 절대적, 비역사적인 특성이 아니다. 오늘날의 강남은 20년 전, 40년 전의 강남과 다르다. 안창모(2010)가 밝혔듯이, 1980년대 초반 이전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은 ‘강남’이란 지명으로 불리지 않았고, 영등포의 동쪽을 의미하는 ‘영동’ 또는 한강의 북쪽을 가리키는 원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을 가리키는 ‘남서울’로 불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 지역은 강북 지역의 영향 하에 놓여있었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강남지

역의 개발을 위하여 강북의 개발억제와 강북의 주요기관들을 강남지역으로 옮긴 결과, 1980년대 중반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쇠퇴한 강북’과 ‘부흥한 강남’이 동시적으로 탄생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이영민, 2006, 1) 혹은 ‘대한민국의 강남’¹⁾으로서 오늘날 강남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오늘날 강남의 배타적인 공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혹은 전국으로 수렴되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적 이해가 중요하며, 강남의 로컬리티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인지하는 비본질주의적이고, 관계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황진태, 2011a).²⁾ 다시 말해, 본 연구자가 ‘강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략적으로’ 회피하지는 제안을 한 것은 기존의 강남연구가 강남 자체의 배타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기울이면서 상대적으로 강남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구조와 요인, 사회세력들에 의하여 강남의 로컬리티가 변화하는 측면은 간과되었음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계론적 인식의 강조는 후술할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개념화에도 연관된다.

둘째, 강남을 행정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 긴밀한 관련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공간’(최종철 편역, 1995: 이상일, 1995)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양차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시도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모델과는 달리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했던 반면에 사회적 복지의 범주에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과 부동산투기의 통제에 있어서는 최소주의적 개입을 견지하였다(Park, 1998: 장세훈, 1990, 60-62).³⁾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衣食住)의 하나로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존재론적 불안감과 자산증식수단으로서 주거에 대한 기대감이 결합되어 1970년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붐(boom)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투

기를 통한 부의 축적은 합리적 행위로 상식화되었다(장세훈, 1990, 67; 이영민, 2006; 최은영, 2006). 이를 통해서 강남의 탄생과 강남/비강남의 공간적인 분할구도가 유지, 심화된 것은 경제적 자본의 보유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강남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 형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동등한 빈곤상황에서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쳤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중심으로 발전주의적 망탈리테의 확산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Kang, 2011, 167)에 참전한 국민들은 경제적 자본축적에 효과적으로 다다르기 위해 서라도 학맥, 인맥으로 불리는 사회적 자본과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여 상위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는 계층임을 구별 짓는 취향이라는 문화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영민(2006)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강남을 보도한 신문기사들의 담론을 분석하면서, 강남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1) 부동산 투기와 부의 집중 문제(‘말죽거리 신화’, ‘복부인’), 2) 강남 공교육과 사교육의 과열 문제(‘8학군’, ‘위장전입’) 3) 강남 소비문화 문제(‘오렌지족’, ‘아타족’)를 꼽았다. 즉,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제적 자본과 사회지도층을 차지하는 일류 학벌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 그리고 고급소비문화로 대변되는 문화적 자본이 응축되어 강남의 로컬리티를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영민의 연구는 강남의 지역성이 경제적 자본의 차이로만 환원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들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선도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각각의 세 가지 자본에 조응하는 신문기사들을 선별, 유형화를 하다 보니 세 자본들 간에 상호 긴밀히 연결된 측면은 간과된 한계도 있다. 후속연구들도 경제적 자본에만 초점을 둔 전통 정치경제학적인 한계를 비판하면서 문화적 자본(심승희·한지은, 2006; 김남일·백성기, 2008; 김수정·최셋별, 2012)과 사회적 자본(김종엽, 2003; 강창동, 2006)을 각각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개념을 선별적으로 차용한 선행연구들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

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영향을 받았다.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별 자본 유형을 국내사례에 적용하여 개념의 설명력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르디외가 제시한 세 가지 자본 유형 중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개별연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다보니 본래 부르디외가 강조하고자 했던 각 자본 간의 관계성과 총체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비평이 제기되고 있다(Shin, 2012, 270). 필자는 이처럼 개념들 간의 유기성을 잃고, 파편화가 심화된 원인중 하나로 공간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기인한다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르디외의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개념들(아비투스(habitus), 구별짓기, 문화적 자본 등)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개념이지만 그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공간적 비유를 제안한바 있다(최종철 편역, 1995). 그가 사회적 공간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층화된 사회세계를 경제적인 것으로만 규정하는 전통 맑시즘 분석에 대한 반감에서였다(이상일, 1995, 66). 하지만 이상일이 지적하듯이 부르디외가 사회적 ‘공간’이란 비유를 사용했지만, 그가 언급한 공간 개념은 “‘용기(container)’로서의 절대적 공간개념을 상정하고 사용”(이상일, 1995, 82)했을 뿐, ‘사회와 공간 간의 변증법’(Soja, 1997; 황진태, 2011b)적 특성을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이 지점에서 공간연구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확보된다. 아래 두 연구는 부르디외의 사회적 공간 개념이 강조하는 개별 자본 간의 총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강남을 구성하는 고유한 공간성을 인지하고 있는 연구이다.

이동현·이향아(2011)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라는 행정적 지역단위로만 오늘날의 강남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강남의 경계의 안팎에서 위치한 여러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강남에 대한 심상지리(心想地理)의 관계와 접합을 통하여 강남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강남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 환경(‘집값’, ‘고급차’, ‘주상복합’), 문화적 취향, 지위와 학력을 도출하고, 인터뷰 응답자가 강남의 어느 구, 어느 동네 사는지 그리고 강남 밖에 거주하는지 등의 위치를 바탕으로 거주 위치

에 따라서 앞선 요소들 중에서 강조하는 지점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⁴⁾

다음으로 박해천(2011, 2013)은 한국 도시중산층의 형성에 있어서 아파트의 물질성을 주목한다. 그는 기존 연구들이 “아파트가 주조해놓은 시각 문화의 대중적 호소력을 간과”(2011, 8)했음을 지적하면서 아파트의 근대적 거실 및 주방문화와 새로운 주거의 공간구조가 “독특한 감각과 인지의 공간적 매트릭스로 인간 거주자들의 습속을 분절하면서, 그 결과, ‘신중산층’의 독특한 정체성을 생산”(2011, 68)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아파트 문화를 주도한 강남은 “정치적 보수화의 전초기지”(2011, 96)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진 국토의 아파트화”(2011, 97)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는 일상공간에서의 새로운 공간성의 출현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위와 습속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공간성을 지지하고, 욕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정리하면, 이영민(2006, 2008), 이동현·이향아(2011), 박해천(2011, 2013)의 연구는 강남이 어떻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 긴밀한 관련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강남의 아파트, 도시중산층의 탄생이 물질적, 담론적으로 오늘날의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을 가동, 유지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중요한 선행연구다. 이들 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강남 만들기로 대표되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developmental urban matrix)’ 개념에 근거한 비강남 지역에서의 강남 따라하기가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시간적 배경은 2199년, 인공지능 컴퓨터(AI)가 만들어 놓은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AI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에 연결되었고, 인간들의 의식은 AI가 만든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1999년으로 설정된 가상현실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매트릭스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AI가 만들어 놓은 스미스 요원들의 감시와 기억삭제를 비롯한 통제를 받게 되고, 매트릭스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영화 <매트릭스>의

흥미로운 지점은 매트릭스 프로그램으로부터 깨어난 저항세력에 속했던 사이퍼라는 인물이 매트릭스 밖에서 AI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맞은 못 느끼더라도) 풍요로워 보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매트릭스 안과는 달리 죽으로 연명하는 매트릭스 밖 현실에서의 삶을 힘들어하면서 결국 매트릭스 안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장면이다.

한국 발전주의 도시성의 본체이자 AI는 강남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발전주의 망탈리테는 AI가 설정한 가상현실 공간인 1999년의 매트릭스처럼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발전주의 망탈리테를 선전하는 ‘스미스 요원’은 국가, 기업, 개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Kang, 2011). AI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체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듯이, 물리적 공간으로서 강남 그리고 강남개발을 주도했던 국가와 자본만을 비평의 살테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국 발전주의 도시성의 총체성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강남의 물리적 공간 밖에 위치한 도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공간에서 강남 따라하기를 통하여 AI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공자궁 속 인간들처럼 발전주의 망탈리테와 이를 담고 있는 강남의 위상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발전주의 망탈리테와 다른 경로의 삶과 가치들을 알게 되더라도 도시민들은 사이퍼처럼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로부터 떠나길 원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동현·이향아(2011)가 강남 비거주자 11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5명이 강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93명이 강남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이퍼처럼 강남을 향한 부정과 욕망의 변증법이 강남 비거주자들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남 밖 도시민들의 발전주의 도시성에 대한 지지는 AI를 만든 경험이 있는 국가와 대기업과 같은 노련한 스미스 요원들의 활동도 지지하면서 지방에서 “X의 강남”을 구축하는데 이들의 개입을 정당화해준다. 더구나, 지방 각 도시에서 ‘X의 강남’의 구축은 강남을 향해 표출했던 부정과 욕망의 변증법이 ‘X의 강남’으로도 향하면서 지방도시 스케일에서의 새로운 불균등발전의 구도가 형성되고, 이는 오늘날 발전주의적 국가계획의 산물인 서울 강북 대 강남, 수도권 대 지방간의

불균등발전에 대한 인식을 간과내지 축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를 작동시킨다. 즉, 발전주의 도시성이 발현되는 강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남이란 공간뿐만 아니라 비강남 지역에서 ‘X의 강남’을 만들고자 하는 강남 따라하기가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을 가동,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매트릭스를 핵심개념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초점인 강남연구에 있어서 비강남 지역에 주목한 선행연구도 있다. 김경민(2007)은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강남 아파트가격 상승이 경기 지역 및 기타 광역대도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음을 밝혔다. 박해천은 “포스트-강남”으로서 부산의 신시가지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부산의 강남”(박해천, 2013, 169-170)이 된 원인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자본이 지방으로 진출하려는 “건설사의 야심”과 지역의 “투자자의 욕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한다(2013, 171). 김경민과 박해천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지방의 강남화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자본이 새로운 주택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제적 심급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지방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자신들의 연구분석의 범주에서 주변화시키는 한계와 지방의 로컬리티를 서울의 자극에 의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보는 서울-지방간의 이분법적 인식론을 드러냈다. 물론, 박해천은 지역의 ‘투자자의 욕망’을 언급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류 강남문화의 하류 지방으로의 확산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험연구로 진전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로서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어떻게 한국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 속에 위치,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사례연구

1) “부산의 강남”의 형성: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오늘날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센텀시티(Centum City)와 마린시티(Marine City)로



그림 1. 센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및 센텀중학교(좌), 마린시티 주상복합아파트(우)

알려져 있다(국제신문, 2016년 1월 3일; 그림 1). 1990년대 부산의 제조업 생산설비가 부산 인근의 양산, 김해로 이전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위기에 직면하자, 부산시는 부산의 지역경제구조를 제조업에서 첨단지식집약형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운다. 대표사업으로 1997년 과거 수영비행장과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던 해운대구 수영강변 35만평 위에 SK그룹과 지역민간기업들 그리고 부산시가 공동출자한 제3섹터 형태의 부산정보단지개발 주식회사(이후 센텀시티 주식회사로 상호변경)⁵⁾가 주축이 되어, 2000년 센텀시티로 명칭을 확정하여 “정보통신·영상·오락·국제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건설한다(윤일성, 200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16년 4월 25일 접속;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⁶⁾ 하지만 본래 첨단산

업단지를 목적으로 건설된 센텀시티는 경기불황으로 부지분양이 저조하게 되면서 2002년 4월 주거용지를 포함한 용지의 일부 계획변경이 결정된다(부산일보, 2016년 2월 12일; 계획변경을 둘러싼 상세한 논의는 윤일성(2002, 90-97) 참조).⁷⁾ 이는 오늘날 센텀시티의 주요 경관을 이루게 되는 해운대 더샵센텀파크(2005년 완공)를 비롯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밀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세계 최대의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을 비롯한 롯데백화점이 개점하였고, 백스코, 영화의 전당,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등(그림 2 참조)이 건설되면서 오늘날의 센텀도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마린시티가 건설된 수영만 매립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경기장을 조성할 때 바다를 매



그림 2.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좌), 영화의 전당(우)

립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땅이다(건설 과정의 상세한 소개는 엄은주·우신구(2012) 참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인식이 강하여 고급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건설계획이 있었을 뿐, 오늘날 마린시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해운대 두산위브 더제니스를 건설한 두산건설이나 해운대 아이파크를 지은 현대산업개발 등의 건설기업들에게 주거 건물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주상복합아파트인 카멜리아 오피스가 건설된 것으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세워지게 된다(위키백과, 2016년 4월 25일 접속; 엄은주·우신구, 2012). 이와 더불어 ‘영화의 거리’나 광안대교(1994년 착공, 2003년 개통), 고급호텔, 선착장은 고급주거타운으로서 마린시티의 경관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센텀시티의 후발주자이자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마린시티는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높은 매매가를 기록하는 신흥부촌으로 등극하였다(이테일리, 2016년 3월 8일).⁸⁾

앞선 설명처럼 2000년대 일련의 건조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는 부산에서 신흥부촌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부산의 부촌이 곧 “부산의 강남”이라는 로컬리티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세워지기 이전인, 1996년 해운대구에 부산지역 최초의 계획도시(306만㎡ 부지, 12만 명 규모)로 조성된 해운대 신시가지가 당시 신형 아파트단지의 외형을 가졌다고 하여 “부산의 강남”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었다(인터뷰 I).⁹⁾

박해천(2013, 169-170)이 말하듯이 2000년 이후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부산의 강남”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근거는 수도권 지역의 건설자본이 부산으로 진출하는 등의 경제적 동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센텀시티의 대표경관인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서울의 강남점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동북아 최고의 관광허브”로 만들기 위한 매장확충과 신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테일리안, 2016년 2월 28일).¹⁰⁾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언론을 통해서 “부산의 강남’ 해운대 고가 아파트 분양 성공할까”(이테일리, 2016년 3월 8

일), “‘부산의 강남’ 해운대는 주상복합 단지 열풍”(글로벌이코노믹, 2014년 11월 18일) 등의 기사제목에서 보듯이 강남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산이 부동산 열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 해운대가 고급TV(“자동차 한 대 값 ‘초고가 TV’, 강남보다 부산서 잘팔렸데이”(조선비즈, 2016년 4월 25일), 외제자동차(“물스스로, 압구정이어 부산 해운대에 전시장 연다”(머니투데이, 2016년 4월 21일)) 등의 고급소비재를 판매할 새로운 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사를 볼 때, 기존의 서울 강남에 몰려있었던 자본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해운대를 주목하고, 투자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서울의 자본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부산을 개척한다는 경제적인 설명으로도 “부산의 강남”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자본의 흐름을 소개한 신문제목과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자신들의 심상지리에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기존의 강남과 결부시키면서 “부산의 강남”을 부드럽게 호명한다. 대표적으로 사이의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대중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의하여 “부산의 강남”이 물질적, 담론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로 2012년 미국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2위, 유튜브 20억만 건 조회를 기록하면서 일약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강남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강남 삼성무역센터, 강남에 세워진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한강변, 강남의 횡단보도 등의 건조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남궁영, 2012). 강남스타일에 이어서 2015년 12월에 출시된 대디(Daddy)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는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림 3). 강남스타일에서 대디까지 사이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청자의 시선은 마린시티의 고급스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요트 선착장들을 응시하게 되면서 강남스타일에서 인지하였던 강남을 상징하는 건조환경의 이미지를 부산 마린시티에서도 마치 강남스타일 속편을 보듯이 재확인하게 된다.¹¹⁾

이 장을 정리하면, 부산은 지역경제구조의 전환이 요구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센텀시티와 마린



그림 3. 가수 사이의 대디(Daddy)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나온 마린시티

시티로 대표되는 대규모 건조환경을 구축하게 되고, 이는 “부산의 강남”이 형성될 물적 토대가 된다. 아울러, 서울 강남을 기반으로 한 자본들이 센텀과 마린시티에 투자가 진행되고, 언론을 통하여 강남과 부산 해운대 간의 담론적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부산의 강남”이 물질적, 담론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서울자본이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경제적 요인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재현되는 “부산의 강남”은 부산의 경계 내부에 있는 사람과 공간을 텅 비우는 외부자적 시선이라는 점에서 부산의 경계 안팎을 가로질러 다양한 행위자들이 “부산의 강남”을 구성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부산의 강남”으로서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구성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센텀시티에서 경계의 구축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분을 짓는 기본은 두 지역 사이에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Paasi, 1996). 경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줄긋기로 그치지 않는다. 특정 경계는 그것의 안과 밖에 위치한 행위자들이 경계를 통하여 “여기”와 “저기”,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심상지리의 형성을 동반한다. 즉, 어떤 공간의 물질성과 이 물질성을 전유하는 다양한 기호, 상징, 내러티브에 의한 누적의 결과물로서 경계는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지속된다. 모든 행위자들이 특정 경계를 두고서 균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계를 교란하여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재설정을 시도할 수 있다. 2절과 3절에서는 1)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의 각 경계를 구성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물질성을 살펴보고, 2)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지역(비주상복합아파트 단지)과 차별화된 자신들의 경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담론의 경합이 발생하며, 3)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동일한 물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경계를 구축하려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센텀시티의 경계를 구성하는 물질성을 살펴보자. 센텀시티를 구성하는 대표경관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이다. 예컨대, 위성사진(그림 4) 상단 왼편에 위치한 좌수영교 오른편에 세워진 더샵 센텀파크2차아파트¹²⁾는 인공위성 사진에 나올 정도의 대규모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이다(지상에서의 시점은 그림 1 참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의 차이는 단순히 건축양식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센텀시티 거주자 F에게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베란다가 없고, 생선 굽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편한 곳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환기장치가 미비한 점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본인의 생활양식을 건축양식에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한다.¹³⁾ 의식주라는 단어가 함의하듯이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로서 주거만큼이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물질성은 거주자의 먹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압도적이다. 이처럼 물질성이 거주자 생활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린시티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견뎌야하는 센텀시티 거주민은 “밭에 치일”(인터뷰 F) 정도로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람들이다. 센텀시티는 지역주민이 인식하기로는 “부산시내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평당 오백만원으로 시작”(인터뷰 F)했고, 수입차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유한 곳이다. 이는 부산의 구도심과 센텀시티 간에 경제적 자본의 격차를 보여준다. 연구자는 센텀시티 거주자 두 명에게 센텀시티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



그림 4. 구글맵에 나타난 센텀시티 일대

다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경계를 사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스코에서부터 요기 (주상복합-인용자주) 아파트 단지 끝까지예요”(인터뷰 A).

“아파트죠. 아파트. 센텀시티는 여기 백스코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아파트 끝나는 여기까지가 센텀시티예요”(인터뷰 F).

즉, 차별적인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투영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자체가 센텀시티의 지역적 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강남연구에서는 강남에 살고 있는 내부자보다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강남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경관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동훈·이향아, 2011, 155)이 있었지만 센텀시티의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아파트라는 물질적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응답자 F는 아파트를 포함한 근대적이고, 세련된 센텀도시의 경관을 기존의 구도심 경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경계를 구분 짓는다.

“강 건너만 딱 가도. 막 골목에 이렇게 주차할 데도 없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인제는 너무 건물이 딱딱딱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인제, 깨끗하죠.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있고. 또 전부 새로 지은 거니까. 통일적인 그런 게. 약간 다르면서. 통일적인 그런 건물. 유리건물로 되어 있으니까”(인터뷰 F).

이는 위성사진(그림 4)에서도 수영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의 계획도시인 센텀시티에 비하여 왼편 구도심은 복잡한 도로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센텀’은 부산의 부유한 “중산층”¹⁴⁾이 ‘깨끗하고’, ‘통일적인’ 근대적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들의 인식을 따르다면, 고소득 전문직종의 중산층이라는 계층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비주상복합아파트(즉,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센텀시티의 경계 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센텀시티의 물질성을 바탕으로 센텀시티의 안과 밖에 위치한 센텀시티 거주민과 비거주민 간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의 경합을 살펴보자. 위성사진 상에 나타난 지명으로만 볼 때 독도(讀圖)지는 센텀센시빌과 센텀현대아파트(그림의 점선타원 부분)는 센텀시티 중심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지만 이 두 아파트가 센텀이란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센텀시티의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센텀시티 거주자들은 이 두 아파트가 센텀시티의 경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센텀시티가 경계가 불분명해요. 왜냐면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오른 걸로 알거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전부 새칠하면서 앞에 센텀현대아파트, 센텀롯데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센텀이 되어버렸어요. ... 주상복합 중심인데, 일반아파트하고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잖아요?”(인터뷰 A)¹⁵⁾

연구자가 현지답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에서 보듯이 센텀센시빌은 주상복합아파트 양식이 아닌 이름만 바뀐 일반아파트이다. 센텀센시빌과 주상복합 중심의 센텀시티 사이에는 2차선 도로와 동해남부선 철로가 놓여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있다(답사노트, 2015년 9월 24일). 센텀센시빌 주민들이 아파트 명을 바꿈으로써 센텀시티의 경계 안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지가상승의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반면, 기존의 센텀시티 거주자들은 비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제적 자본의 증식을 위한 경계 교란하기로 인하여 ‘깨끗하고’, ‘통일적인’ 센텀시티의 경관이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센텀시티의 경계는 주상복합건물의 물질성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센텀시티 거주민은 동일한 주상복합건물인 마린시티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센텀시티의 로컬리티를 차별화하고자 하는 인식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그림 5. 새한센시빌에서 센텀센시빌로 아파트 외관의 변화

“마린시티는 여기(센텀시티-인용자주)랑 컨셉이 좀 다른 거죠. 센텀이 먼저 생기고, 마린시티는 유흥이랑 뭐 이런 쪽으로 좋고, 주거하고 같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죠.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아파트 있고, 학교 있고, ... 유흥가도 그렇게 다들 요식업이 대부분이고, 유흥가는 없고, 그게 지금 우리 아파트의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예요. ... 안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서 집에서 학교를 왔다갔다하는 거가 아주 안전하죠”(인터뷰 F).

위의 인터뷰 응답자 F의 발언과 달리, 현지답사를 통해서 마린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주변 유흥가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초등학교도 마린시티 내부에 있으면서 안전한 귀가경로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F는 비주상복합아파트가 센텀시티의 경계에 들어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비판적인 논조를 드러낸 것과는 달리 마린시티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동일한 주상복합아파트임을 전제하고서 두 도시의 개별 이점을 파악하는 ‘부드러운 경계짓기’를 하였다(답사노트, 2015년 9월 23일). 다음 절에서

도 확인하겠지만, 센텀시티 거주민이 마린시티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자신들의 로컬리티 경계를 구분 짓는 방식은 마린시티 거주민에게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동일한 물질성을 공유하지만 센텀시티에 비하여 최근에 건설되고, 독특한 디자인, 여러 편의설비가 투입되고, 보다 고가의 분양가를 기록하는 마린시티의 거주민들은 이전에 만들어진 센텀시티와의 비교에서 자신들이 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계의 구축을 시도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3) 마린시티에서 경계의 구축

먼저, 센텀시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마린시티의 경계를 구성하는 물질성을 살펴보자. 센텀시티 거주자들의 경우 연구자가 “어디 사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센텀에서 산다”고 답하였다. 본래, 센텀이란 용어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은 아니지만¹⁶⁾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센텀시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이름(더샵센텀파크, 더샵센텀스타, 대우월드마크센텀아파트, 트림프월드센텀아파트)과 학교명(센텀초등학교, 센텀중학교, 센텀고등학교), 지하철역(센텀시티역)에 공통적으로 센텀이 들어가면서 센텀 지명이 지역정체성을 나타내는 영역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센텀시티 거주자들은 비주상복합 아파트에 센텀 용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였다. 반면, 마린시티의 경우에는 마린이란 지명이 센텀처럼 동질적인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어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다. 마린시티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부산대우트림프마린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마린을 아파트 지명에 포함하지 않았다(더샵아델리스아파트, 두산위브포세이돈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해운대아이파크아파트 등). 마린시티지역에 초등학교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2년에 개교한 해원초등학교의 이름도 마린이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자가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마린시티 거주자들은 마린시티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제니스”, “아이파크”)으로 답변했다.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마린시티가 개발되었고¹⁷⁾, 주상복

합아파트 이름에 지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센텀시티 거주민에 비하여 지명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구축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지명을 통한 경계 구축이 약하다는 것이 센텀시티 거주민에게서 확인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물질성이 마린시티의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린시티 거주자 B는 “우리 시택은 아주 시골인데 그제 참 안맞”다면서 자신은 “굉장히 도회(都會)같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럽고”, “모든 게 최첨단”인 마린시티는 자신과 같은 ‘도회적인 사람’에게 적합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전자 시스템이 나는 너무 좋고, 좀 많이 내가 이런 첨단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다와 인접한 입지의 특성상 공기가 좋고, 동백섬이 가까이 있는 환경 또한 마린시티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¹⁸⁾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는 것과 “서울의 타워팰리스가 주상복합 1호”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 또한 그러한 서울 타워팰리스와 같은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내 인테리어는 거주자의 경제적 자본과 더불어 문화적 자본인 취향이 반영될 여지가 높다. 부산에서 아파트 실내 고급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C에 따르면 마린시티에 위치한 아델리스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인은 아델리스의 거주 강점으로 한 층에 세 세대가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여섯, 일곱 대인 것을 손꼽았다고 한다. 반면, 센텀파크는 높기도 더 높지만, 세대도 더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밖에 없다. 또한 센텀시티는 취학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온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¹⁹⁾, “잠깐만 사니까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를 안 하”는 거 같지만, 마린시티에서는 “구조적인 필요 외에도 어떤 컨셉(concept)을 하겠다든지. 영화에서 보는 장면,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어디 리조트에 갔는데 그런 분위기. 이번에 배용준이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룸. ‘난 거기 너무 좋아. 그런 컨셉으로 해줘요’하면서 컨셉을 표현할 줄 아는 동네”(인터뷰 C)가 마린시티라고 설명했다. 즉, 응답자 C에 따르면 동일한 주상복합 아파트라 하더라도 마린시티가 센텀시티보다 내부 설비, 인테리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또 다른 거주자 G는 “센텀에는 백화점이 있고요. 마린에는 요트경기장이 있죠”라고 답하면서 마린시티가 보다 고급스러운 곳으로 규정하였다.²⁰⁾ 이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경제적 자본의 투입이 문화적 자본인 고급취향과 비례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센텀시티 거주자가 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의 불편함을 감당한 것과 유사하게 마린시티 거주자들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물신(物神)적인 지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투명유리나 반사유리로 빌딩 외벽을 커튼처럼 덮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을 이용하여 지어졌다(부산일보, 2012년 6월 7일). 센텀시티는 바다로부터 떨어져, 시가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마린시티는 햇빛을 피할 수 없는 바다를 맞대고 건설되고, 통유리로 인한 실내 온실효과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일보, 2012년 9월 4일). 센텀시티에서는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식생활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었다면(인터뷰 F), 마린시티는 센텀에서 확인된 불편함과 더불어 더위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새로운 불편함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나 온실 속에 살고 있잖아. ... 사실 첫 해는 그런 짐을 안 살아봐가지고.. 집이 갑자기 여름에 들어갔더니 (더운 바람이-인용자주) 훅하는 거예요. 허.. 숨이 턱 막히고, 이렇게 답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근데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내가 요령을 아는 거죠”(인터뷰 B).

“내가 센텀을 살다가 여기 와서, 적응을 했어 바로 첫 해에. ... **외관이 예쁘려면,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 부산사람 나오면 아이파크부터 비취주잖아요. 보통 보면 선전에 책자나, 어디든 비행기를 타면 그게 왜 그렇겠어요. 외관이 제일 예쁘고, 뭔가 광안대교하고 어울리고 하나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인터뷰 D 짧은채 인용자주).

마린시티 거주민 중에서도 “제니스가 너무 더워서” 센텀시티로 돌아간 경우도 있지만(인터뷰 C), 남은 주민들은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인터뷰

를 하는 와중에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더위로 인한 불편함은 밝히더라도 냉난방기의 적절한 운용, 3중 커튼, 낮에 카페 머물기 등의 적응방법을 소개하는데 치중하면서 더위의 근본 원인인 커튼월 공법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옹호하는 인상을 받았다(답사노트, 2015년 12월 11일). D의 말에 따르면 “어느 집이든지 약점 없는 데는 없”는 것이다. 특히, D의 인터뷰 내용은 자신들의 거주 공간의 불편은 건물 외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녀의 시각에서 ‘빛 좋은 개살구’ 또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고사성어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빛 좋은 개살구’로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물질성은 마린시티 거주자들이 자신의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감내할 정도로 지지하게 되는 건조환경에 대한 물신성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²¹⁾

다음으로는 마린시티의 물질성을 바탕으로 마린시티의 경계가 경합되는 지점을 살펴보자. 앞서 연구자는 센텀시티에 비하여 마린시티는 지명을 통한 경계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덜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물질성은 마린시티의 경계를 구분 짓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림 6>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으로 동쪽 방향의 화살표를 기준으로 서쪽은 마린시티, 오른쪽은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이다.²²⁾ 화살표 방향이 위치한 곳에는 왕복 6차선 도로인 해운대 해변로가 지나고 있다. 마린시티의 경계가 어디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마린시티 거주자들은 해운대 해변로를 경계로 보고 있다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특정 건물이 마린시티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지 여부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먼저 응답자 G는 해변로가 경계가 되기는 하지만 현대베네시티와 제이드(사진 상에는 안보이지만 현대베네시티의 오른쪽에 위치함)는 주상복합양식이기 때문에 마린시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응답자 B는 해변로의 경계를 강조하면서 제이드와 현대베네시티는 “마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럴 경우, 현대베네시티, 제이드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일반 아파트인 “대우마리나도 마린시티 소속”²³⁾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B



출처: 네이버지도

그림 6. 네이버 항공사진을 통해 본 마린시티 일대

는 주상복합양식의 동질성보다는 해변로를 중심으로 마린시티와 비(非)마린시티 간에 학군이 다르다는 차이를 강조하였다(“길 건너에서는 여기(학교-인용자주)를 못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인터뷰 B)). 주상복합 양식의 동질성을 강조한 G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다. 그녀에 따르면, 마린시티에 해원초등학교(2012년 개교)가 세워지기 전에 자녀가 해강초등학교(1995년 개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동일한 학군이었지만, 마린시티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해원초등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학군도 나뉘지게 되었다. 정리하면, B는 학군을 중심으로 마린시티와 비마린시티를 구분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경계는 2012년 학교가 개교하고서야 구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군 변동의 역사를 알고 있는 G는 학군보다는 주상복합 양식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현대베너시티와 제이드도 마린시티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인식을 통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물질성과 함께 학군

이 경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또한 센텀시티와는 달리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강조하는 요인(건축양식, 학군)에 따라서 상이한 경계짓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마린시티의 경계도 센텀시티와 마찬가지로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동질적인 물질성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센텀시티 거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를 바탕으로 비주상복합아파트와의 비교 속에서 센텀시티의 로컬리티를 구축하였지만, 또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단지인 마린시티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센텀시티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마린시티 거주민들에게도 앞서 확인했듯이 주상복합아파트가 경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성이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동일한 물질성을 띠더라도, 센텀시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되고, 고급 인테리어 취향, 보다 고가의 분양가를 기록한 마린시티의 물질성은 센텀시티의 그것과 차별적이다.

“그거(센텀시티-인용자주)는 신세계 백화점 옆에 있잖아요. 그거 너무 도심 한복판이잖아. 그거는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여기는 바다를 끼고 이렇게 동백섬도 있고 ...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센텀시티를 좋아하진 않을 거 같은데요. 내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사람들 정서상. 여기를 좋아하지 거기를 좋아하겠어요. 왜냐면 시내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 백화점만 있는데 그게 좋겠어요? 기왕이면 **여기를 이 공기를 좋아하지**”(인터뷰 B 굵은체는 인용자주).²⁴⁾

“제 느낌에는 조금 업(up)된 거 같고,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센텀시티-인용자주)가 좀 후져보이고**. 하하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여기는 별천지 ... 요기(마린시티-인용자주) 있는 엄마들은 그냥 티는 안내지만은. 많이 배웠던 학력이나 그런 거는 티는 안내지만은. .. **절대점수 이거 아니예요**. 길게 봐야 되요. 교육이라는 거는. **저기서는 1등해야지**. 근데 **여기는 1등 아니어도 좋아**. 공부 느슨하게 나중에 기회 봐야돼. 그리고 방학 때 되면, 한 애도 남아있는 애가 없어요. **다 외국가고 없어**”(인터뷰 D 굵은체는 인용자주).

“센텀시티 사시는 분들, 저처럼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저기서는 교육열이 아주아주 ... 교육을 위해 오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조금 덜하지 않나**.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들을 ...** 이렇게 뭐 위우고 꼭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인터뷰 G 굵은체는 인용자주).

인용된 인터뷰 응답자 세 명은 “여기”(마린시티)와 “저기”(센텀시티)로 경계를 구분 짓는데 있어서 입지요인, 교육방식 등의 차이를 강조했다. 센텀시티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백화점이 인접한 것을 센텀시티 거주자의 장점으로 삼았던 것(인터뷰 A와 F)과는 달리, 응답자 B는 백화점을 도심의 복잡함을 야기하는 단점으로 규정하고, 인공물이 가득한 ‘도심 한복판’보다는 맑은 공기와 바다, 동백섬 등의 자연물이 인접했음을 장점으로 부각했다. 응답자 D와 G는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부산의 대치동”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센텀시티를 1등만을 강요하는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곳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센텀시티 거주민들을 ‘교육열이

아주아주 ... 교육을 위해 오신 분들’이지만 자신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조금 덜’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그들의 구별짓기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경쟁주의나 사교육 중심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센텀시티 학부모에 비하여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덜하’다고 밝힌 응답자 G는 초등학교 자녀에게 영어학습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캐나다에서 정규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11개월 동안 보냈었다. 응답자 D가 목격했듯이 마린시티의 학부모들은 응답자 G처럼 자녀들을 방중에 해외에 보낸다. 여기서 핵심은 센텀시티 거주자들에 비하여 마린시티 거주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해외에 ‘11개월’은 홀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센텀시티 학원을 통하여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과 달리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생활을 ‘11개월’ 동안 일상의 삶으로 조성하여, 영어를 익숙하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녀의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의 경계의 형성은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물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이 응축된 “부산의 강남”이라는 독특한 로컬리티가 생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강남”이라는 새로운 로컬리티는 비주상복합아파트와 구도심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부산의 부촌들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확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물질성을 공유하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간에도 상호간에 구별짓기와 경계짓기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부산의 대치동”으로서 센텀시티의 관계적 공간성

앞선 사례연구에서는 “X의 강남”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배타적이고, 영역적인 공간들이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에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방도시에서 “X의 강남”의 형성은 서울 강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어떻게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이 매트릭스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센텀시티와 마린 시티의 경계의 구성에서 나타난 배타적이고, 영역적인 공간적 속성은 독자들에게는 마치 'A'인 서울 강남과 "X의 강남" 간에는 상호 고립된 형태인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특정 공간의 배타적 영역화와 그 공간이 다른 공간과의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상호모순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황진태, 2011a). 본 장에서는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가 교육을 통하여 강남과 "X의 강남"들 간에 물리적, 담론적 연결망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센텀시티는 부산에서는 "부산의 대치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령, <그림 7>은 센텀시티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의 광고인데, 대치동이라는 장소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더불어 센텀시티를 부산의 대치동으로 규정하려는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담론적 구성물로서의 "부산의 대치동"은 물질적 흐름을 통하여 보다 공고해진다.²⁵⁾ 먼저, 강남의 학원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부산 해운대에 진출하고 있다(예듀동아, 2016년 1월 28일; 뉴스 1, 2016년 4월 21일).²⁶⁾ 이처럼 센텀시티에 위치한 지역 학원이나 서울로부터 진출한 대형학원업체들은 실제 센텀시티에 밀집된 학원가(街)라는 건조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산의 대치동"이라는 로컬리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산의 강남"과 "부산의 대치동"이라는 프레임의 결합은 부산 거주민들이 센

텀시티로의 거주를 욕망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취학아동을 둔 센텀시티 거주자 A에 따르면 "여기(센텀시티-인용자주)는 사람들 다 젊어요. 일단 취학연령 애들을 다 데리고 있다." 학부모로서 교육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인터넷 카페를 자주 접속하는 그녀는 카페 방문자들이 "전부 센텀을 추천하더라고요. 마린이나 신도시(해운대 신시가지-인용자주)는 추천을 안"한다면서 자신이 바라보기에 센텀시티는 "압구정은 아닌 거 같고요. 청담동도 아닌 거 같고, 딱, 대치동. 학원을 보내기 위한" 곳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젊은 학부모들이면 누구나가 센텀시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센텀시티는 "발에 치일" (인터뷰 F) 정도로 변호사와 의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중산층'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센텀시티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해운대 신시가지를 포함)의 학생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센텀시티의 학원가를 이용한다 (인터뷰 E).²⁷⁾

흥미롭게도 십년을 넘게 센텀시티에 거주했던 A는 경제적 자본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센텀시티의 "서른 네 평 가장 작은 평수"에라도 "입성"하기 위하여 많은 대출을 받은 가족들을 보았다면서, 직업이 전기수리공인 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초등학교 일부 기간만을 채우고서 부산 주변 신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연구자가 왜 센텀시티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않고, 떠났냐는 질문에 그녀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잠깐이라도 "애



그림 7.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입시학원의 인터넷 광고 이미지(학원명은 인용자가 삭제했음)

들을 선텀에서 교육을 시켜보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기억하기를 바라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연구자가 그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 자녀의 교육의 향상보다는 잠깐이라도 ‘선텀시티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공간을 강조했던 거주자의 목적은 부산 안에서 “부산의 대치동”으로서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선텀시티의 공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 관련 인터넷 카페나 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선텀시티 거주민들은 선텀시티를 “부산의 대치동”으로서 부산지역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부산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울 강남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선텀시티-인용자주) 사는 동안에 참 좋았는데, 애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좀 생각을 해야되고, 그걸 받쳐줘야 되니까, 부산이 교육적인 면에서나 다른 것도 그런데 서울하고 격차가 너무 커요. 그냥 뭐. 서울, 부산..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예요”(인터뷰 F, 굽은체 인용자주).²⁸⁾

“일단 저도 이제 강남에 남편 꼬셔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놓고 왔다갔다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하지만 자녀 교육이 아니면 강남을 벗어나죠. 저도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대학을 보내면 강남을 떠날 거 같아요”(인터뷰 A).²⁹⁾

위와 같이 강남에 대한 비교를 통한 부산의 낮은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은 학기 중에는 자녀가 선텀시티의 학원을 다니지만 방학기간에는 경제적 자본이 보다 풍부한 학부모들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로 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인터뷰를 했던 응답자 A도 방학기간에 자녀를 영어토론대회를 준비하다가, 대치동 학원에 다니게 하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같은 팀원들끼리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앞서 마린시티 거주자들이 선텀시티와의 비교 속에서 구별/경계짓기를 하면서, “부산의 대치동”인 선텀시티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시장에 빠져있지만, 자신들은 그러한 교육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마린시티 외부의 거주자에 따르면 마린시티에 거주하

는 지인의 자녀가 방학 때마다 대치동 근처에 오피스텔을 빌려서, 학원을 다녔다고 말한다. 마린시티 거주자도 자신의 이웃의 자녀도 방학마다 강남 학원에 보내어 영재교에 들어갔음을 말하였다(인터뷰 G).³⁰⁾

정리하면, “부산의 강남”으로서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른 선텀시티가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각광받으면서 부산 지역과 서울 강남에 기반을 둔 학원자본들이 진입하고, 이를 통해서 언론과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부산의 대치동”이란 심상지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로컬리티는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를 통하여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학기 중에는 “부산의 대치동”인 선텀시티 학원가를 이용하지만, 서울과 부산 간의 커다란 교육격차를 인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방학 기간에는 자녀들을 강남 대치동 학원으로 보내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강남과 “X의 강남”들 간에 물리적, 담론적 연결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5. 미완의 연구의 한계 그리고 탈강남/탈발전주의적 도시성의 모색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에 기반한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성 연구가 국가중심적 인식에 빠지면서 간과되었던 도시공간과 도시민이 빚어내는 내밀한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발전주의 도시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을 환기하였다. 둘째, 도시연구에 있어서 부르디외가 제시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유형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상이한 자본형태들 간에 서로 연결된 총체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즉, 선텀시티와 마린시티는 사회적 공간의 구축과정을 주목함으로써 이 공간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간의 상호친밀성을 확인했다. 셋째,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주의 도시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정 도시의 물리적, 행정적, 상징적 경계 안에 국한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별 도시들이 구성되는 배타적, 영역적 특성과 더불어 이들 도시들 간의 맺어지는 관계적 특성의 복합적 구성물로서 이해할 것을 제

언했다.

다음으로 사례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발전주의 도시 혹은 강남연구에 있어서 지방도시의 연구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는 부산에만 국한되었지만, 앞으로 대구 수성구와 부산 센텀시티 간에 교육 관련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최근 도시연구가 통계를 이용한 계량분석 혹은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 주목한 담론연구가 지배적이면서 ‘안락의자의 지리학(armchair geography)’³¹⁾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제 “X의 강남”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특정한 물질과 담론을 전유하는지를 역동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담론분석, 심층인터뷰와 현지답사간의 방법론적 유기성을 높이는 시도를 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가 현존하는 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부산 사례만으로는 매우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특히, 2장에서 논의한 ‘지방 각 도시에서 ‘X의 강남’의 구축은 강남을 향해 표출했던 부정과 욕망의 변증법이 ‘X의 강남’으로도 향하면서 지방도시 스케일에서의 새로운 불균등발전의 구도가 형성’ 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본 사례연구는 극히 일부 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익명의 논문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라는 사회적 공간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상호연계성을 보여주려는 필자의 의도가 충분히 사례연구에서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자본 간의 긴밀함을 보다 잘 드러내는 섬세한 분석을 약속한다. 셋째, 특정 로컬리티의 형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심층 인터뷰에 기반하여 특정 시각을 과대 해석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거주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부산에서 장기체류가 어렵고, 연구자 단독으로 직접 심층인터뷰를 도맡아야하는 상황에서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이외에 부산 거주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한

점도 한계다. 이들이 인식하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의 경계는 센텀과 마린시티 거주자들과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부산의 강남”, “부산의 대치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개발한 지역성장연합(건설업체, 부산시, 지역정치인, 지역언론 등)의 의식, 목표,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윤일성, 2012)이 누락된 것도 본 연구의 치명적인 한계로 볼 수 있겠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빨간약을 삼킬 것인지, 파란약을 삼킬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빨간약은 매트릭스 밖으로 나오게 되고, 파란약은 매트릭스 속에서의 일상을 지속시켜준다. 결국, 그는 빨간약을 삼켰다.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는 어떠한가? 대부분은 사이퍼처럼 파란약을 선택하고, 현존하는 발전주의 도시성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빨간약이나 파란약이나를 성급히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어 탈발전주의적 도시의 전망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본다. 파란약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만 어떤 성분들이 빨간약으로 조제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논문은 미완의 연구이지만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탈강남/탈발전주의적 도시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빨간약의 바탕이 되었으면 바람이다.

주

- 1) 이 용어는 본 논문의 초고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화여대 이영민 교수로부터 들었음을 밝힌다.
- 2) 본 연구의 핵심논의는 아니지만 기존의 장소성을 둘러싼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비본질주의적 장소성은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황진태(2011a)를 참조 바람.
- 3) 한국의 주택 및 부동산정책을 동아시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장세훈(1990, 61)이 지적하듯이 “사회세력들 간의 역학관계, 그에 따른 국가의 개입 정도 등에 따라 (주택을 포함한-인용자주) 토지소유구조가 상이하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싱가포르 정부는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고, 이들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하고, 토지의 사적소

- 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싱가포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ark(1998) 참조).
- 4) 선도적인 강남연구를 시도한 이영민(2006, 2008)도 강남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했지만,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안(이영민, 2008)과 밖(이영민, 2006)으로 나누어서 개별 논문을 작성하면서 안과 밖 간의 변증법적 역동성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이동현·이향아(2011)의 연구는 강남 안팎에 위치한 광범위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심상지도 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후속연구로 볼 수 있다.
 - 5) 센텀시티 주식회사는 용지개발과 부산시의 위탁업무를 마치고 2007년에 청산되었다(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
 - 6) 2013년 말 현재 834개 기업이 센텀시티에 입주해 있다.
 - 7) 지역신문인 부산일보의 사설에서는 센텀시티의 용지 계획변경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라기보다는 제2의 해운대 신시가지로 퇴색되고 말았다. 부산의 도시개발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로 지적된다. 센텀산단의 축소는 부산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했다”면서 비판적인 어조를 내비치고 있다(부산일보, 2016년 2월 12일).
 - 8) 한 카드사의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1동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36만원으로 서울 대치동(133만원)이나 압구정동(130만원)을 앞질러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6년 4월 22일)
 - 9) 1990년대 초반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보도기사들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지방 최고의 상권형성”(동아일보, 1995년 12월 6일), “천혜의 환경, 최적의 도시”(매일경제신문, 1993년 12월 23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용어들이 나타났지만, 부산 내부에서 강남과 같은 배타적인 성격의 부촌으로서 인지되지는 않았다. 완공 이후, 1990년대 후반 기사에서는 건설부실, 편의시설부족, 분양비리를 보도하는 기사들이 다수였고, 부의 양극화, 불균등발전을 문제 삼는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경향신문, 1996년 5월 11일; 동아일보, 1996년 4월 28일). 예외적으로, 기업비리를 저지른 한 사업가가 고급의 제승용차를 타고, 신시가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호화생활”로 보도한 기사가 있지만(동아일보, 1999년 9월 18일), “부산의 강남”이란 심상지리가 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의 부촌으로 볼 수 있는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가령, 인터뷰 응답자 I는 연구자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조성되기 이전에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의 부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히 못 사는 아이들 없이 고만고만했던 동네”였고, “중산층 이미지가 강함” 곳이라면서 부촌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미주 14에서 밝히듯이 중산층의 기준 또한 유동적이다. 여기서 초점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처럼 계획신도시, 신형아파트단지를 통하여 “부산의 강남”이란 심상지리가 조성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의 부촌(연구자의 시각) 혹은 중산층의 공간(인터뷰 D)으로만 남아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 10) 강남 서초구 구반포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일상생활공간에 속하는 강남 고속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개시된 상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브랜드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에 입지하기도 했지만, 신세계 강남점에 입지했기 때문에 충분한 광고효과가 된다”(인터뷰 H, 굿은체 인용자주).
 - 11) 참고로 국내 5개 자동차회사도 모두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광고를 촬영했고, 가수 에이핑크의 뮤직비디오 리멤버도 마린시티에서 촬영되었다.
 - 12) 지도상에서는 더샵센텀파크2차아파트만 병기되었지만, 실제로는 더샵센텀파크 1차와 2차가 함께 있다.
 - 13) 응답자 F의 경험을 일반화할 의도는 없다. 일반화된 반응으로 규정하려면 더 많은 인터뷰가 필요하다. 가령, 응답자 I는 연구자의 질문에 상가아파트에서 구이용 생선이 잘 팔린다면 “생선 아주 잘들 구워 먹습니다”고 답변했다.
 - 14) 센텀시티, 마린시티, 해운대 신시가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인터뷰 응답자들은 자신들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중산층의 엄격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임을 중산층이라 용어에 투여하였다.
 - 15) 부동산뱅크(<http://m.neonet.co.kr/novo-rebank/index.neo>)의 ‘우리아파트게시판’에서는 아파트 명칭을 바꾼 것이 센텀시티의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주민들 간의 논쟁을 확인할 수 있다.
 - 16) 대외적으로 센텀은 100을 가리키는 라틴어에 도시를 결합하여, “100% 완벽한 첨단도시”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윤일성(2002, 66)에 따르면 부산시는 ‘도시 속의 첨단도시’라는 의미에서 센텀시티로 정했다고 한다.
 - 17) 인터뷰 응답자 D는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제각각이고, 마린시티가 센텀시티처럼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명으로서 확립되는데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녀는 마린시티라는 지명을 안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편주소를 쓸 때도 과거 지명이었던 우동을 쓰지 않고,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예컨대, 마린시티 1로)을 의식적으로 쓴다고 말하였다.
 - 18) 인터뷰 응답자 E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수영교 다리를 건너면 공기가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는 부촌에 대한 호감과 실제 바닷가 근처라서 대기오염도가 낮다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시켜 말한다고 한다.
 - 19) 교육과 관련한 센텀시티의 특성은 다음 장을 참조바람.
 - 20) 마린시티를 바라보는 외부적 시선으로서 해운대 신시가지에 사는 응답자 E는 “아이파크 거기 보면 폴

- 바셋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 그게 다른 게. ... 저기 마린시티 이쪽에 제일,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다”면서 마린시티가 부산의 유행을 선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 21) 커튼월 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벽에 반사된 직사광선이 일반아파트인 경남마리나아파트 단지에 비추면서 빔공해(눈부심, 내부온도상승 등)를 유발하여 마리나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하였다(부산일보, 2012년 6월 7일).
 - 22) <그림 6>은 마린시티 건물들의 일부분만 나타나 있다. <그림 1>의 마린시티 건물들 너머로 해운대 해변로가 가로지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마린시티 전경을 파악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겠다. 혹은 유튜브에 게시된 드론영상을 참조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AAJ-BgrygGE>).
 - 23) 응답자 A는 대우마리나아파트를 포함한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그런 고층아파트 있죠. 딱 직사각형. 그런 아파트가 짝 있어요.”
 - 24) 응답자 B가 외국인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대화중에 마린시티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를 물었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북유럽의 선박회사가 들어와 있기도 하며, 많은 외국인 주재원들이 거주하고 있다.
 - 25) “부산의 강남”이라는 새로운 로컬리티가 이전의 부산의 부촌들에 비하여 배타적이고, 영역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듯이, “부산의 대치동”이란 로컬리티의 구성 또한 이전의 부산에서의 교육관련 밀집지역과는 달리 교육과 더불어 경제적, 문화적 자본들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배타적, 영역적 공간이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인터뷰에서도 기존에 교육으로 특성화된 지역인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연제구의 소위 ‘법조타운’이나 1990년대 학원이 몰렸던 해운대 신시가지를 “부산의 대치동”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인터뷰 A와 E).
 - 26)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한 스포츠전문학원은 서울 본점 다음으로 센텀시티에 지점을 개원하기도 했다(파이낸셜뉴스, 2013년 4월 3일).
 - 27) 센텀시티의 학원가는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28) 응답자 F는 남편이 미국 로스쿨을 마치고, 대기업의 중진임원이지만 높은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강남으로의 이사를 포기하고, 캐나다로 교육 이민을 결정하였다.
 - 29) 응답자 A는 1980년대 강남 8학군인 숙명여중과 경기여고를 졸업하였다. 인터뷰에서 자녀교육만 아니면 강남을 떠나겠다는 발언은 강남보다 쾌적한 거주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이다.
 - 30) 본문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일화이지만, 응답자 B는 마린시티에 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서울 강북에 위치한 경희대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강남역에 구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학부모를 “강남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 일화는

마린시티의 지역주민의 의식에서도 “X의 강남”의 원본인 강남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 31) 이 용어는 장세훈(2009, 207)이 사용한 “안락의자의 사회학”에서 차용하였다.

문헌

- 강창동, 2006, 한국 초등교육의 학력 자본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26, 101-123.
- 김경민, 2007,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변화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2(2), 137-161.
- 김남일·백선기, 2008, 언론매체의 ‘강남권역’신화형성과 이데올로기, 언론과 사회, 16(2), 2-36.
- 김수정·최셋별, 2012, 문화강좌를 통해 본 서울 강남과 강북의 문화취향, 문화경제연구, 15(1), 3-29.
- 김종엽, 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 55-77.
- 김태우, 2013,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파주.
- 남궁영, 2012,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기호 분석, 한국방송학회 201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혼돈의 시대 - 방송학의 사명을 찾다), 논문집, 175-180.
- 박해천, 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서울.
- 박해천, 2013,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서울.
- 심승희·한지은, 2006, 압구정동청담동 지역의 소비문화경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61-79.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63-97.
- 엄은주·우신구, 2012, 해운대 마린시티의 형성과정 및 배치와 평면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3-234.
- 윤일성, 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한울아카데미, 서울.
- 윤일성, 2012, 부산시 대규모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접근: 토건주의적 성장연합의 개혁을 위하여, 한국민족문화, 42, 205-239.
- 이동현·이향아, 2011, 강남의 심상규모와 경계짓기의 논리, 서울학연구, 42, 123-171.

- 이상일, 1995, 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지리학: 문화와 소비의 사회지리학을 지향하며, 응용지리, 18, 57-101.
- 이영민, 2006, 서울 강남의 사회적 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1-14.
- 이영민, 2008, 서울 강남 정체성의 관계적 재구성 과정 연구: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1-14.
- 장세훈, 1990,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독점과 토지투기: 한국사회 토지문제 분석을 위한 시론, 경제와사회, 7, 45-78.
- 장세훈, 2009, '아파트 공화국'의 사회학적 해부: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 한국의 주거사회학』, 전상인 지음, 이숲, 2009, 198쪽, 한국사회학, 43(2), 203-207.
- 최은영, 2006, 차별화된 부의 재생산 공간, 강남의 형성: 아파트 가격의 시계열 변화(1989~2004년)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33-45.
- 최종철(번역),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서울(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Éditions de Minuit).
- 황진태, 2011a, 장소성을 둘러싼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적 이분법을 넘어서기: 하비와 매시의 논쟁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5, 55-66.
- 황진태, 2011b,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사회, 90, 262-289.
- Amsden, A.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Pub., Malden, MA.
- Hwang, J.T., 2015, Escaping the territorially trapp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1-7. doi: 10.1080/00330124.2015.1103657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y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dford, CA.
- Kang, M.K., 2011, Compressed modernization and the formation of a developmentalist mentalité, Kim, H.A. and Sorensen, C.W.(eds.), *Reassessing the Park Chung Hee Era, 1961~1979: Development, Political Thought, Democracy, and Cultural Influ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United States of America, 166-186.
- Kim, Y-J., 2011, Park Chung Hee's governing ideas: impact on national consciousness and identity, Kim, H.A. and Sorensen, C.W.(eds.), *Reassessing the Park Chung Hee Era, 1961~1979: Development, Political Thought, Democracy, and Cultural Influ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United States of America, 96-106.
- Lefebvre, H., 2000, *Everyday Life in the Modern World*, A&C Black, London.
-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 Park, B-G., 1998, Where do tigers sleep at night? The state's role in housing policy in South Korea and Singapore, *Economic Geography*, 74(3), 272-288.
- Paasi, A., 1996, *Territories, Boundaries, and Consciousness: The Changing Geographies of the Finnish-Russian Boundary*, Wiley, Chichester.
- Shin, Y., 2013, Bourdieu and urban politics: Conceptualizing a Bourdieusian relational framework for urban politics research, *Planning Theory*, 12(3), 267-289.
- Soja, A., 1997,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Verso, London.
- Woo-Cumings, M.(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 <경향신문> 신시가지 특혜분양 4명구속 5명수배, 1996년 5월 11일
- <국제신문> 진단 동남권 신도시 <1> 부산의 신도시들, 2016년 1월 3일
- <글로벌이코노믹> '부산의 강남' 해운대는 주상복합 단지 열풍, 2014년 11월 18일

〈뉴스1〉, 2016 강남 SAT·ACT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교 입시 경향 및 전략 설명회 개최 2016년 4월 21일
〈데일리안〉 신세계, 강남점 증축 이어 내달 3일 부산 센텀시티몰 오픈, 2016년 2월 28일
〈동아일보〉 “해운 대신시가지 졸속시공” 입주주민들 집단소송 준비, 1996년 4월 28일
〈동아일보〉 부산해운대 신시가지 투자자들 “군침”, 1995년 12월 6일
〈동아일보〉 사채업으로 큰돈모아 호화생활, 1999년 9월 18일
〈머니투데이〉 롤스로이스, 압구정이어 부산 해운대에 전시장 연다, 2016년 4월 21일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정보: 해운대 신시가지 천혜의 환경 최적 주거지 각광, 1993년 12월 23일
〈부산일보〉 ‘거대한 거울’로 석양 시간대 건너편 아파트 ‘째통’ 고통, 2012년 6월 7일
〈부산일보〉 끝나지 않은 여름...월 전기요금 30만원 ‘폭탄’ “고지서 걱정에 밤잠 설치요”, 2012년 9월 4일
〈부산일보〉 [사설] 재송동 첨단산단 개발, ‘센텀’ 전철 밟지 말아야, 2016년 2월 12일
〈에듀동아〉 이투스24/7학원 부산해운대점 오픈, 2016년 1월 28일
〈연합뉴스〉 부산 센텀시티(주) ‘역사속으로..’, 2007년 6월 29일

〈이데일리〉 ‘부산의 강남’ 해운대 고가 아파트 분양 성공할까, 2016년 3월 8일
〈조선비즈〉 자동차 한대 값 ‘초고가 TV’, 강남보다 부산서 잘팔렸데이, 2016년 4월 25일
〈조선일보〉 한국의 부촌... 미래의 복합도시로 가고 있다, 2016년 4월 22일
〈파이낸셜뉴스〉 W스피치, 강남스피치학원 인기에 힘입어 부산 진출, 2013년 4월 3일

웹사이트

구글맵스(googlemaps.co.kr)

네이버지도(map.naver.com)

부동산뱅크(neonet.co.kr)

유튜브(youtube.com)

위키백과(ko.wikipedia.org)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 교신 : 황진태,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308호(dchjt@naver.com, 전화 02-880-2869)

Correspondence : Jin-Tae Hwang, 308ho, 101d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South Korea(e-mail: dchjt@naver.com, phone:+82-1-880-2869)

(접수: 2016.04.15, 수정: 2016.05.10, 채택: 2016.05.20)